

# 화순군 인구유출 확 줄인 비결은?

### 2년 전 270명서 지난해 24명 그쳐 만원주택·24시 어린이집 등 성과 지난해 255명...출생아 매년 증가

화순군의 인구유출이 1년 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등의 사업이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2023년 270명이던 순인구 이동(전입-전출)은 지난해 24명으로 급감했다. 전년 대비 인구유출 규모가 90% 이상 감소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화순군 인구는 6만735명으로 2023년 말 6만1254명 대비 519명이 감소했지만 2022년 말 대비 770명이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줄어든 셈이다.

자연증가에 해당하는 사망자 수는 2022년 785명, 2023년 716명, 2024년 752명으로 매년 700명을 넘어섰지만, 출생아 수가 2022년 178명, 2023년 212명, 2024년 25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화순군이 추진 중인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 아파트인 화순읍의 부영6차아파트.

화순군은 출생아 수 증가와 유출인구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화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과 전입장려금 지급, 결혼장려금 지급,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과 같이 주거·양육 등 다양한 방식의 인구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화순군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빛을 발하면서 출생과 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을 추진해 살고 싶은 화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담양군, 14일~2월 24일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효율적 영농설계' 돕는다

담양군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간 영농 설계의 시작을 알리는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들의 기술 향상과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지역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벼농사 교육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2개 읍·면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 설 연휴(28일~30일) 이후인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는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딸기·블루베리·미생물활용·농산물마케팅·체험 및 치유농업 과정이 이어진다.

담양군은 이번 교육 기간 중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와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발생한 농업현장 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 최신 영농기술 정보와 과학 영농시설 설계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강의를 통해 지역 농업의 미래와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대상은 지역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주택용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한 모습.

## 강진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 49억 투입 556곳 신재생에너지 보급

강진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국도비 6억원을 확보했으며,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택·공공·상업 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

한 공개 및 현장평가를 받아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사업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며,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 472곳, 태양열 77곳, 지열 7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022년과 2024년에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932개소와 태양열 54개소를 설치했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군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함평군, 범곡산업과 44억원 규모 투자협약

### 동함평산단에 연말까지 제조 공장

함평군이 철강구조물 제조업체인 ㈜범곡산업(대표 윤정현)과 4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사진)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범곡산업은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동함평산업단지 내 1만423㎡ 부지에 H빔 철골구조물 제조 공장을 올 연말까지 신설한다.

㈜범곡산업은 고품질 친환경 철강재를 사용하는 강도와 내구성을 자랑하는 H빔 철골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함평군은 이번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윤정현 대표는 "금속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뿌리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협약은 함평군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 발전과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나주시 동절기 화재 예방 대책 강화

나주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동절기 화재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동절기 대책으로 화재취약시설 합동 안전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노후 아파트 안전취약계층 화재 예방물품 지원 등을 역점 추진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한 이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숙박시설, 버스 터미널, 공공목욕장,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 취약시설 146개소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10일 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 전기, 가스 등 분야별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읍면동별 화재 예방 홍보활동과 피해 주민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안전재난과장 주재로 한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통해 이통장, 주민자치회 주관의 화재예방대책 홍보, 마을 방송 1일 1회 이상 송출, 홀몸노인



나주시 화재취약 시설 점검.

등 취약가구 사전 점검, 화재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방안을 논의했다.

또 화재 발생 가구를 위한 마을회관 임시거처 활용, 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수혜 내역 등을 안내했다.

화재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화재예방용품도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된 주택용 소방시설을 878세대에 보급했으며 노후 아파트 안전취약계층 1082세대엔 스프레이형 소화유구를 무상 지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흥군 천관산 인근에 관광·휴양 복합단지

### 천관디엔씨와 438억 투자 협약

장흥군 천관산 인근에 관광·휴양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장흥군은 최근 ㈜천관디엔씨와 '천관산 관광·휴양 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관디엔씨는 관산을 옥당리 부지(7만 9930㎡)에 438억원을 투자해 관광·휴양 복합단지

를 조성할 예정이다.

주거부지에는 주거형 주택단지 74세대가 조성돼 분양될 계획이고, 관광휴양부지에는 어린이테마파크, 동물테마파크 등 다양한 테마공간이 들어선다. 군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